

정신의 발달과 삶의 의미 두 번째 이야기

2025년 9월 15일

자아의 자원이 고갈되고 필연적 무능을 깨닫게 될 때, 원형적 정신의 지지적 측면에 대한 경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극한성은 신의 기회다.”

죄란 자기의 기능을 떠맡으려는 팽창된 자아의 가정이다.

자아가 자기(Self)와의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자아는 자기의 지지를 경험할 수 없다. 자아가 자기의 팽창된 충만함을 비우기 전까지는 은혜의 흐름을 담는 그릇(vessel)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비움은 반드시 소외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도 같은 사상을 표현했다.

신은 모순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는 순간에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신이 인간을 의롭다 여기려 할 때, 인간은 오히려 신을 저주한다. 신이 인간을 살리려 할 때, 먼저 그를 죽여야 한다. 신의 총애는 분노의 형태로 전달되므로, 그것이 주어질 때 오히려 가장 멀리 느껴진다. 인간은 먼저 스스로 건강하지 않음을 외쳐야 한다. 그는 두려움으로 소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시적인 처벌의 고통이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구원이 시작된다. 인간이 비참하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때 빛이 비로소 들어온다.

임상에서 소외 신경증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를 의심한다. 흔히 말하는 열등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를 가지고 있으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최고의 바람·욕구·흥미라 할지라도 가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신 에너지가 막혀 고이게 되고, 그 결과 신체화 증상, 불안, 원시적 정서의 폭발, 우울, 자살 충동,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은폐된(covert)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신 앞에서 정당한 존재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팽창된 자아 상태가 폭로되면 추락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소외 속으로 빠지게 된다. 우리 모두는 팽창의 잔재, 곧 운명과 현실에 대항하는 기저의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내가 더 나은 아동을 보냈더라면...’

‘내가 결혼만 했다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게 더 나은 남편만, 혹은 아내만 있었다더라면...’

등등.

이 모든 ‘~라면’의 질문은 현실과 생산적으로 관계 맺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 그것들은 개인의 욕망보다 훨씬 큰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팽창의 증상이다. 옳은 왜 이런 참담한 고통이 자신에게 주어졌는가를 물었다. 그러나 옳기는 결국, 그가 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다.

한 발달 수준에서 유아성을 드러내는 관념과 이미지들은, 또 다른 단계에서는 지혜를 나타낸다.

자기의 이미지와 속성은 이제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자아가 자기(Self)에 종속된 것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이 더 이상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깨달음과 함께 다가온다. 사람은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자아와는 대립적인 내면의 자율적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옳은 대부분의 사람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신’이라고 불렀다.

그는 임의적이고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했다. 이것은 원시인들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과도 같다. 원시인에게 모든 것은 정신적 의미를 띠며, 초개인적 힘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우주와 친밀한 관계를 살아내는 것이다.

정신의 깊은 곳과 의식적으로 더 관계 맺으려 할수록, 우리는 옳이 말한 것과

같은 태도로 인도받게 된다. 즉, 외부의 삶과 내면의 삶의 변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미를 지닌 것이며, 초개인적 패턴과 힘의 표현이라는 태도에 이르게 된다.

경험의 범주로서 '우연'은 오히려 소외된 삶의 증상이다.

아동과 원시인에게 그러하듯, 자기(Self)와 연결된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일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에머슨(Emerson)도 같은 사상을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명백한 우연 뒤에는 법칙이 있다. 세상의 비밀은 사람과 사건 사이의 유대이며, 영혼은 이미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은 곧 당신의 내면을 복제한 것이며,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줄기에서 성장한다.

달팽이가 배나무 잎 위에서 자신의 미끄러운 집을 메고 가듯, 각 피조물은 자기 조건과 영역을 따라 삶을 움직인다.

사람 또한 앞으로 마주할 사건 속에 던져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우연은 없으며, 법칙이 존재 전체를 지배한다.

심리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신은 자아와의 동일시에 가장 훌륭하게 숨겨져 있다. 이 숨겨진 신에 대한 관념은, 신의 지혜가 인격화된 영지주의(Gnostic)의 소피아 신화와 맞닿아 있다. 창조 과정에서 신성한 지혜인 소피아는 물질 세계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어 물질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숨겨지고 구속받는 신은, 물질 속에서 정신의 어둠 속에 숨겨진 자기를 상징한다.

소피아를 가두고 있는 물질은 개별적 자아의 구체적이고 일시적이며, 대지적인 실재를 의미한다. 만약 신이 물질, 즉 미성숙한 인격에 갇혔다면, 인간 심리 발달의 과제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으로 이 신을 구속하는 데 있다.

신의 구속은 연금술의 핵심 주제와 맞닿는다. 연금술적 작업은 곧 구원의 작업이다. 그것은 기본 물질의 속박에서 최고의 가치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과정이다. 기본 물질, 즉 원질료(prima materia)는 정신의 팽창된 미성숙과 대응하며, 철학자의 돌, 곧 신성한 본질로 변환되어야 한다.

원질료는 자아-자기 정체성, 즉 근원적 팽창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연금술적 과정을 통해 이 재료를 다루는 것은, 자기(Self) 또는 원형적 정신이 자아와의

오염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정제하고 분리하며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 문제는 개인의 정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거의 같다.

적절한 답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의미는 주관성 속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누가 주관성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말할 때, 흔히 그것이 결론 없는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단지 개인적인 것이라고 암시한다.

서양 사회의 다양한 압력은, 사람들을 외적이고 객관적인 요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은근히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상징은 살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상징은 개인에게 강하게 끌림을 일으키는 주관적 힘이며, 정신에너지를 방출하고 변환하는 살아 있는 유기적 존재다.

따라서 사인(sign)은 죽은 것이고, 상징은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상징과 사인의 차이

사인(sign): 단순한 표시나 기호, 죽은 의미를 가진 것.

예: 화장실 표지판, 도로 표지판 → 의미는 외부에서 부여되고, 감정이나 에너지는 없음.

상징(symbol): 살아 있는 의미를 가진 것, 우리 마음과 정신에 직접 작용함.

예: 꿈 속의 길, 새, 불, 어머니의 이미지 → 개인에게 강하게 끌림을 주고, 감정과 에너지를 움직임.

2. 상징의 힘과 생명성

상징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에서 발견되는 꽃이나 별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징은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 있는 힘입니다.

3. 상징과 개인의 삶

상징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에게 지지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징이 주는 힘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행동과 결정을 이끌며, 자아(ego)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꿈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불, 물, 길)는 우리에게 내적 갈등이나 성장의 방향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상징은 살아 있고, 주관적인 의미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징을 만들 수 없고, 발견할 뿐입니다.

상징은 우리를 안내하고 힘을 주며, 삶 속에서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원형적 정신은 끊임없이 살아 있는 상징 이미지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흐름은 꿈이나 낮은 의식 상태에서의 판타지를 통해 드러나거나,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아의 인식을 넘어 계속 작용한다.

상징은 자아 안으로 스며들어 자아가 이를 동일시하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한다.

또한 상징은 투사(projection)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 흘러가며, 개인이 외부 대상과 활동에 매료되고 관여하도록 만든다.

사람은 종종 원형적 정신의 상징과 외적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면의 상징적 이미지가 외부 세계의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원시인의 물활론적 신념, 정신병자의 환각과 망상, 각종 미신에서 나타난다.

연금술, 점성술, 현대의 치유 숭배 사례도 여기에 속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징적 이미지를 외부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상징은 정신적 상태가 의식적 태도를 바꿀 때만 타당하며, 물리적 현실에 마술처럼 적용하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융 학파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상징 과정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상징을 의식하려면 먼저 무의식 상태에서 상징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의식적 상징과 우리의 경험

무의식 속 상징은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가진 힘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긴급한 감정이나 강렬한 욕망은 사실 그 상징의 에너지가 표현된 결과일 뿐, 상징 자체는 우리가 바로 지각하지 못합니다.

예시:

누군가가 갑자기 큰 화를 내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은 실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 속 상징이 몰고 온 긴급감일 수 있습니다.

2. 상징의 역동성과 인간 행위

상징의 힘을 이해하면, 단순히 개인의 신경증적 왜곡뿐 아니라

비인간적이거나 야만적인 의례, 집단적 폭력, 초자연적 숭배 같은 행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상징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고대 의식에서 사람이나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신앙이나 맹목적 숭배

→ 겉으로 보면 폭력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만, 그 안에는 무의식적 상징과 동일시된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상징과 동일시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징을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징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 상징 속에 '살아야 하는 운명'처럼 붙잡혀, 상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동일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원형적 정신과 권력, 탐욕과 결합되면 욕망이나 충동으로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살아 있지만, 우리가 그 힘을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과 욕망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강력한 기분과 정서적 상태 속에서 적절한 상징 이미지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에 사로잡힌 한 남자 내담자가 있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 감정을 표출할 수도, 억압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의미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다니엘서에 기록된 불타는 용광로 속 세 남자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분노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황금 우상을 섬기라고 명령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를 거부하고, 왕은 분노한다. 결국 세 사람은 용광로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고, 네 번째 인물이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걸었다. 마치 '신의 아들처럼'.

이 이미지가 분노를 해소한 이유는, 상징적으로 정서의 의미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왕은 독재적이고 폭군적이며, 신의 특권을 빼앗아 자기 자신을 신처럼 동일시하는 존재다.

세 사람은 초개인적 가치를 거부하며, 왕의 좌절과 분노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

네 번째 인물은 경험 속에서 구현된 초개인적·원형적 요소로, 의미, 해방, 전체성(네 번째)을 가져온다.

사실 증상은 자아의 환원적 오류 때문에 평가절하된 상징이다.

1. 증상과 자아의 오류

우리가 흔히 보는 증상(불안, 강박, 우울 등)은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아(ego)가 증상을 축소하거나 평가절하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증상은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자아의 제한된 시각 때문에 단순한 '오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시:

우울감 → 단순한 기분 저하로만 평가

실제 의미 → 내면의 상실, 갈등, 자기(Self)와의 관계에서 오는 메시지

2. 중상(middling state)의 불편함

중상 상태란 극단도 아니고 완전히 안정된 상태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극단적 감정(극심한 불안, 강한 흥분)에는 반응하지만, 중간 상태

에서는 무력감, 지루함,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3.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면,

즉, 증상과 불편 속에 담긴 내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증상은 자아가 오해한 상징이며, 그 안에 의미가 숨어 있다.

중간 상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견디며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인간성에 가장 큰 위협은 의미 없음이다.

내담자는 부모 및 가족과의 정신적 동일시 위험을 인식했다.

오늘날까지도 분석가들은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 동일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

인간의 원수는 종종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다.

그 이유는, 가족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동일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급속한 분리에 대한 인식이 개성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표현한 불화적 측면은 도마 복음(Gnostic Gospel)에서도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인간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세상에 불화, 분쟁, 집, 전쟁을 주러 온 줄 모른다. 참으로 한 집에 다섯 명이 있다면, 셋이 둘에 대항하고 둘이 셋에 대항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대항한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되어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 문구의 끝은 불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목적은 혼자 있는 조건, 자율적인 개인의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즉, 타인과의 무의식적 동일시로부터 분리될 때만 성취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분리(separatio)는 고통스러운 불화와 적대감으로 경험된다.

특히 부모와 가족은 무의식적 동일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다. 예수는 이를 설명하며 아버지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부모는 성장한 자녀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에게 원형적 부모 이미지를 투사하기 때문이다.

인간 아버지나 어머니는 완전히 아버지 원형을 구현할 수 없으며, 투사를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존재도 없다.

예수는 이와 달리, 개인적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을 요구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모방이 아니라, 이상적 자아를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임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4-26절에서도 같은 의미가 강조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잃으면 진정한 자신을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진정한 자신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개신교인들은 조만간 다음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

예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가 자신의 독특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에게 보이는 외관이나 그 효과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순수한 인격의 결핍을 드러내는 일이다.

형태와 외관은 공허하다. 본질은 오직 개인의 독특한 내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태복음 6:19-20)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가치를 자기 밖의 대상에 투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투사된 가치는 극히 취약하다. 언제든 잃어버리기 쉽다(좀과 동록).

대상이 사라지면, 그 대상에 부여한 가치 또한 잃어버린 것처럼 경험된다.

그러므로 투사를 거두어들이라. 그리고 그 가치가 발생한 곳, 곧 자기 내면을 인식하라.

복음서의 여러 구절은 잃어버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들려준다. 이 비유들은 모두 인격 안에서 잃어버린 부분, 혹은 억압된 부분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잃어버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전체성도 함께 손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목표가 ‘자기의 전체성’이라면, 의식적 삶에서 잃어버린 열등 기능에 특별한 가치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어린아이의 이미지도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 (마태복음 18:3-5)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14-15)

어린아이는 인격의 어리고 덜 발달된 측면을 상징한다.

그것은 신선하고, 자발적이며, 아직 경직된 패턴에 묶이지 않았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초개인적 정신의 더 깊은 차원은 인격의 미분화되고 어린아이 같은 측면을 통하여 도달된다.

그러므로 성서의 이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안의 어떤 부분을 ‘유치하다 (childlike)’라는 경멸적인 말로 폄하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수용한 상태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선언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6-17)

이 순간, 예수는 초월적 근원—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근원과의 연결을 온전히 경험한다. 그러나 이 최고의 계시는 곧바로 사악한 전개로 이어진다. 강림하는 ‘신의 영’은 부정적인 국면으로 바뀌어 유혹이 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1)

이 사건의 순서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상징적이다. 원형적 정신이 열리면(“하늘이 열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팽창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을 불러온다. 자아는 새롭게 발견한 지혜와 에너지를 쉽게 동일시하고, 그것을 자기 목적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 팽창 모티브는 예수가 마귀에게 이끌려 높은 산 위에 서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구체적인 세 가지 유혹이 제시된다.

첫째, 예수는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는 대답한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3-4)

이것은 물질적 욕구, 즉 새로운 에너지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구체적 오류 (concretistic fallacy)의 유혹이다.

위험은 존재의 정신적 중심과의 살아 있는 접촉을 잃고, 물리적 안정이나 문자 그대로의 경직된 진리 속에서 궁극적 안정을 찾으려는 데 있다.

둘째,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는 대답한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6-7)

여기서의 유혹은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엄청난 효과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이것이 신을 시험하는 교만임을 드러낸다. 그것은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결국 자아와 전체성 모두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길이다.

세 번째 유혹은 권력과 소유에 관한 것이다.

사탄은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왕국을 보여주며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네가 엎드려 내게 충성한다면.”

그러나 예수는 단호히 대답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한 사람의 ‘신’은 곧 그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점이다.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는 개인적 권력의 추구는 결국 악마적 팽창이며, 자기에

속한 팽창에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유혹은 곧 자기와의 만남이 불러오는 위협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의식이 확장되는 정도만큼이나, 자아는 팽창의 위협에 노출된다. 중요한 점은, 예수가 그 위협에 맞서는 방식이다. 그는 어느 순간도 자신의 개인적 의견으로 응수하지 않았다. 오직 성서 말씀을 인용하여 응답했다. 이는 곧 개인적 지혜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아가 흔히 빠지는 오류는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지나치게 개인적 책임으로만 떠맡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부인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야말로 자기실현에서 멀어지게 한다. 반대로, 고통받는 신의 출현처럼 약함과 실패를 육화의 일부로 인식한다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린다.

이 고려는 특히 우울증의 심리에 적용될 수 있다. 우울은 종종 과도한 무게-책임과 자기실현의 무게-에 눌린 결과다. 고통받는다든 사실 자체가 자기 비난의 근거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 환자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심한 우울 증상을 겪던 중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부분 인용).

그녀는 반대편 벤치에 앉은 ‘늙고 매우 더러운 남자’를 보았다. 그는 초라하고 더럽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아웃사이드였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은 쥐 세 마리와 죽은 회색 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의 머리는 곤충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모습은 한순간 ‘후광(halo)’처럼 보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공포 속에 도망치지 않고, 그에게 큰 연민을 느꼈다. 그때 분석가가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상적인 꿈은 현대 정신 안에서 기독교 신화가 여전히 적실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곧,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꿈속의 ‘더럽고 불쌍한 거지’는 곧 꿈꾼 이가 내면에서 가장 경멸하고 거절하던 측면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분석가의 해석은 놀라운 반전을 드러낸다. 바로 그 떠돌이가 예수와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아가 내면에서 가장 하찮고 경멸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최소의 가치이자 동시에 신적 중심이라는 의미다.

올바로 이해된다면 이러한 꿈은 자기 안의 약함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열어준다. 그것은 곧 내면의 열등하고 버려진 부분을 수용하는 길이며, 그 자체가 자기에 이르는 길이 된다.

융은 개성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개인을 형성하고 특별하게 하는 과정이다. 특히 그것은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심리로부터 분화된 존재로서의 심리적 개인의 발달이다. 따라서 개성화는 개별적 인격의 발달목표를 위한 분화과정이다.

심리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는 그들의 개인적 힘(권력)을 좀 더 이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들은 힘과 효과의 중심이 되기 위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소위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효과적인 의식적 자기중심성이나 의식적 개별성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할 뿐이다.

우리가 불충분한 자기사랑이나 자기특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욕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종종 강압은 덕, 사랑 또는 이타주의로 위장하여 발생한다. 이런 무의식적 이기심은 자신과 타인에게 비효과적이고 파괴적이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이기심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의식과 연합하여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물학과 심리학의 모든 사실은 삶의 모든 개별적 단위가 핵심에 대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유일하게 변하는 요인은 그 사실에 수반되는 의식성의 정도다.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이트 학파의 용어인 자기에 (narcissism)는 강압적인 자기사랑(self-love)에 대한 전반적인 잘못된 이해의 좋은 예다. 나르시스(Narcissus) 신화는 과도한 탐닉적 자기사랑과는 상당히 다른 무엇인가를 시사한다. 나르시스는

그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구혼자를 거절한 젊은이다. 보복으로 네메시스(Nemesis)는 그로 하여금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고, 나르시스는 사랑의 대상을 가질 수 없음에 절망하여 죽었다.

나르시스는 사랑할 수 없는, 즉 삶에 흥미와 리비도를 줄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와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소외된 자아를 나타낸다. 물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나르시스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합일되기를 갈망했다. 플라톤(Plato)이 「향연(Symposium)」에서 매우 분명히 표현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랑하고 동경한다. 따라서 그 본래 신화적 의미에서의 자기애는 자기사랑이 쓸데없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자기소유에 대한 갈망이 좌절된 것이다.

나르시스의 문제해결은 그것의 포기가 아닌 자기사랑의 충족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사랑을 근절시킴으로써 사랑스러운 성격을 창조하고자 하는 도덕적 자아의 혼란 실수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심오한 심리적 실수이며, 정신적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자기사랑의 충족은 대상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전제조건이며, 전체적인 정신에 너지의 흐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나르시스의 경우 자기사랑의 충족 또는 심층 깊은 곳에 있는 이미지와의 합일은 무의식으로의 하강, 즉 네키야(nekyia) 또는 상징적 죽음으로의 하강이다. 이것이 나르시스 신화의 더 깊은 의미임은 다른 세부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나르시스는 죽은 다음 나르시스 꽃으로 변했다. 이는 '죽은 꽃(narkao에서 유래한 것으로 딱딱한 또는 죽은)'이다. 나르시스는 하데스에게 신성한 것이었으며 그의 지하세계 영역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페르세포네가 나르시스 꽃을 꺾을 때 땅이 열리고 하데스가 나타나 그녀를 유괴해 갔다. 최소한 본래의 신화적 의미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은 개별성을 찾아 떠나야 하는, 무의식에 이르는 방법이다.

나르시스 신화와 자신의 비친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주제가 시사하는 또 하나는 디오니소스 전설에 대한 디오니소스 숭배적 해석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시사하는 것과 같다. 어린 디오니소스가 티탄들에게 찢겼을 때 그는 거울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프로클로스에 따르면 거울은 디오니소스가 물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나르시스처럼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갈망하였다. 따라서 그는 물질로 제한되었고(육화되었고), 티탄들에 의해 불구가 되었다.

개별성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우리의 합리적 이해로는 포괄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다. 그러나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경험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를 검토 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어원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어원은 언어의 무의식적 측면이므로 심리학적 연구에 적합하다. individual(개인)이라는 말은 두 개의 라틴어 어원, 즉 in=not, dividere=to divide(나누다)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이 말의 기본 의미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개별성의 경험이 일차적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것은 분석되거나 더 간단한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이 아닌 것, 즉 나눌 수 없는 것의 측면에서 개인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기본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동일한 현상을 물질의 기본 단위인 atom이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다(그리스어에서 a=not, termnein에서 유래한 tom은 '자르다, 나누다'를 의미한다).

개인(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미망인(widow)이라는 말과 관련되어있다. 스킷(Skeat)에 따르면 widow(라틴어로는 vichua다)는 나눔을 의미하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같은 어원동사 videre에서 유래했다. 용은 미망인과 고아(orphan)의 이미지가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고 언급하였다.

하나님의 고아, 하나님의 과부다." 마니코 경전에서는 예수가 '과부의 아들로 불린다. 과부는 나뉜 존재다. 따라서 과부가 되기 전에는 나눌 수 없는 개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눔의 과정에 있게 된 것이다. 상징성은 우리에게 과부는 개별성에 이르는 길에서의 경험이며, 사실 개별성은 그 경험의 아들이다. 이는 인간이 독특하고 나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앞서 그가 의존하고 있던 것, 즉 그가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연금술사들의 철학자의 돌과 동의어인 고아의 이미지에도 동일한 의미가 적용된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지원을 상실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별성에 대한 의식화 경험의 전제조건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과부나 고아가 되는 것은 자신을 신(Self)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개별성 경험을 언급하는 중요한 문헌들을 하나(One) 또는 단일성(Monad)과 관련된 고대의 철학적 사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철학자들은 철학적·우주론적 투사에서 개별성의 신비를 만났다. 모든 현상 뒤에 있는 단일성 또는 하나에 관한 그들의 사유는 실제로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사실의 투사였다.

개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